

청년 병역문제 발제 내용

2022년은 대한민국의 국방병역제도에 큰 변화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유력 대선주자가 모병제를 언급하고 공약에 포함했으며, 병역제도의 실질적인 개선과 장병 여건 그리고 복지의 파격적인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새롭게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십 수 년 전부터 예견되어온 우리나라의 인구절벽과 이에 따른 입대자원 부족과 안보 공백, 그리고 군인 처우개선 문제와 인권보장 이슈는 오래 지적되어온 사안입니다. 하지만 왜 20대 대선이 되어서야 이런 시급한 문제가 논의되는 걸까? 고민해본 결과, 결국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또 듣고 있는지의 문제 같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 자세, 잃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군인 처우와 인권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20대 대선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국가안보를 뒷받치는 군대, 그리고 그 군대를 뒷받치는 병역문제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후보들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어도, 결국 모두 저출산과 인구부족이라는 거대한 상수 아래 우리 국방의 미래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후보들의 청년 병역문제 공약과 군인·군필자 복지, 군대인권문제 등을 논의하여 이들의 방향과 방법론을 논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	총평가: ○	<p>완전한 모병제에 반대하는 후보들의 입장에 동의한다. 이 후보 주장대로 완전한 모병제는 결국 사회적 소외계층에 국방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또 하나의 불공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전투에 중점을 둔 전문부사관과 행정, 군수에 중점을 둔 군무원 양성은 현명한 절충안이다.</p> <p>그러나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바로 상비병력 축소다. 군은 지난 10년 간 다수의 경계 실패를 겪어왔다. 노크귀순부터 삼척항 목선 사건까지 경로와 경중도 다양하다. 이는 대한민국 군대 특유의 '정신력'에 대한 논의와 기강 해이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방사단부터 후방부대까지 한국 군대는 모두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것이 실상인데 상비병력 감축 논의와 함께 업무 효율화, 개편 등이 함께 매우 높은 순위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의 상비병력 축소 논의는 반쪽짜리라고 보며, 심상정 후보의 상비병력 30만은 더욱이 실현되기 어려우며 군축공약 하나만으로는 현역병들에게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주장한 "불필요 업무 개선" 내용을 타 후보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p> <p>군 월급에 관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파격적인 군월급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2027년까지,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취임 후 '파격적으로 빠른 시일 내'라고 정리될 수 있는 시간대를 제시했다. 이를 반대할 청년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2011헌마307)로 병사 월급은 최저시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적 모병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선택 ▪ 2027년까지 징집병 규모 15만 명으로 축소, 모병 부사관 5만 명 및 전문행정군무원 5만 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비병력 현행 50만에서 40만으로 감축 ▪ 2027년까지 병 월급 200만원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병사 봉급 최저임금 50% 공약을 100%로 확대 ▪ 병 자기개발 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역시 정착금 지급 및 복무 중 교육, 취업, 자격증 취득 등 맞춤형 인센티브 ▪ 병영생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영생활관 2-4인실 전면 개편 	
윤석열 후보	총평가: ○	<p>군 월급에 관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파격적인 군월급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2027년까지,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취임 후 '파격적으로 빠른 시일 내'라고 정리될 수 있는 시간대를 제시했다. 이를 반대할 청년은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공무원보수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2011헌마307)로 병사 월급은 최저시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 전투체계 구축 이후 모병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내 점진적 모병제 전환 필요성 有 ▪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 증강 ▪ 병사 봉급 취임 즉시 200만원 인상 ▪ 군인 보건 및 복지 포괄적 증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의료사각지대 최소화 - 병 국민연금 가입기간 복무기간 전제로 확대 - 군복무 학점인정제 전국 대학 확대 - 직업군인 수당 현실화 - 참전유공자수당 2배 인상 - 군필자 주택청약 가점 5점 혜택, 소급적용 ▪ 병영생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식주 개선, 학업/취업/창업 연계 자기개발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권보장 위해 가혹행위 및 성비위 근절 ▪ 입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중심 행정을 청년중심으로 개편, 입영대기시간 최소화 	<p>것도 만장일치로 기각한 판결은 대한민국 인권과 법역사의 오점이라고 생각한다.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바뀌어 유력후보들까지 군 최저임금 보장을 공약한 것을 환영한다. 다만 후보께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흐지부지 되어 공약을 폐기하지 않기와 둘, 국가 실정에 맞추어 현실적인 계획을 선보여줄 것이다.</p>
심상정 후보	<p>총평가: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모병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2030년부터 전면 모병제 ▪ 병력 대폭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부터 상비병력 30만 명으로 감축 ▪ 군사보급 최저임금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점진적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보장 ▪ 군인 의료복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장병 무상의료 실현 - 군 외상진료센터, 트라우마 센터 설립 ▪ 병영생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 사용 전면 자유화 ▪ 입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부대 입대 선택 - 군복무 예약제, 사단별 모병제 도입 	
안철수 후보	<p>총평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 모병제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집병 절반으로 줄이고 부사관으로 충원 ▪ 전역자 사회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역 시 1000만 원 사회진출금 지급 ▪ 군인 업무강도 및 불필요 업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로봇 도입으로 과도한 보조업무 경감 - 관사병 등 잡무 사병 역할 영역 정비 	
-		